2000만 불자는 황우석 박사의 연구승인을 강력히 촉구한다

시사뉴스피플 2008. 7 (노동진 기자)

Cover Story
황우석 박사

황우석의 원천기술, 해외에선 독보적 국내에선 끝나지 않은 진실공방

황우석 박사, 아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황우석 박사가 중국 '사자견 복제'에 성공했다고 전해졌다. 황우석 박사가 몸담고 있는 수암연구소는 지난 6월 16일 공식적으로 "일명 사자견이라 불리는 희귀종 티벳마스티프를 중국과학원 과학자들의 요청에 따라 복제에 돌입, 17마리의 복제에 성공했다"고 밝히며 이들 복제견들이 태어나는 장면의 동영상을 함께 공개했다. 이번 사자견 프로젝트는 최단 시일 내에 간단하게 성공해 중국의 과학자들을 놀라움에 휩싸이게 했다고 알려졌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9월에는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미국 연구진이 실패했던 복제개 프로젝트인 '미시 프로젝트'에 착수해 12월에 미시의 첫 복제 개 '미라'를 탄생시켰으며 올해 2월에는 진구와 사랑이를 각각 추가로 복제해 전 세계인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다.

황우석 박사가 '사자견'으로 불리는 희귀종개의 복제에 성공하면서 '진실공방'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황 박사는 이른바 '황우석 사태'로 불리던 줄기세포 논문 조작사건으로 2006년 3월 파면된 이후 재판에만 참석 했을 뿐 외부와 연락을 끊고 지내왔다. 지난해 말 세계 최초로 '애완견' 상업 복제에 성공한 데 이어 두 번째 들려온 이번 '사자견' 복제 소식은 2년간 장기공판을 이어오며 진실공방을 계속하고 있는 황 교수에게 새로운 국면이 될 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략)

황 박사의 조속한 연구승인은 '747 공약' 실현을 위한 첫 걸음

지난 2월 1일 미국의 USA투데이지가 '올해 최대의 의학적 성과'로 꼽고, 장기불황에 시달려온 일본 정부가 58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인공만능줄기세포(ips) 분야에서 국내 박세필, 조쌍구 교수팀이 그들보다 더 높은 효율의 성과로 특허출원을 했다고 전했다. 이는 3번째 인공만능줄기세포 수립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됐으며,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중요성과 황우석 연구팀의 연구재개를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사실 인공만능줄기세포의 근간은 황 박사의 배아줄기세포에서 비롯된다. 세포 치료는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 2가지가 있는데, 세포분화기능이 떨어지고, 배아줄기세포는 분화능은 탁월하지만 난자를 사용하는 윤리문제가 봉착한다. 박세필 교수는 "인공만능줄기세포(ips)의 성과는 좀 더 효율적이다는 면에서 대단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아 여전히 배아줄기세포가 연구의 근간을 이룰 것이며 인공만능줄기세포(ips)는 '보조제' 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나갈 것" 이라며, 국내에서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시급함을 시사했다. 또 박 교수는 "체세포 핵이식 기술이라는 것은 바이오산업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기술이고 국가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기술이며, 이 기술은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되어야 할 사안이다. 왜냐하면 이번 미국 연구(인간배반포 수립)에 서도 볼 수 있듯이 테크니컬한 측면이 많이 알려져 있기에 우리가 빨리 점할 수 있는 저변이 확대되어햐 한다. 특히 황우석 팀은 이 분야에서 많은 기술적 노하우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시급히 이런 내용(연구재개 및 승인)은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빨리 시행되었으면 하는 개인적 소견이다" 라고 밝혔다. 사실 배아줄기세포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하다. 미국 NIH 자료에 의하면 세포치료제의 세계시장 규모는 2005년 100조원 정도며, 세포 치료제가 상용화되면 300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2008년 새해 예산 256조원을 넘어서는데, 국내 1642만 가구 당 1가구에 돌아가는 금액이 1800만원이 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가치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줄기세포 연구에 사활을 걸며, 윤리적인 문제에 봉착하는 난자공급에도 종교를 떠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국내는 아직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연구승인을 미루고 있는 현실이다. 한시바삐 정부도 전 국민의 88.4%가 염원하는 황우석박사의 연구승인을 조속히 이뤄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안과 정책, 지원 등이 따라야 한다. 이미 황우석 박사의 수암연구소는 국제연구기관으로 등록된 상태다. 연구승인을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747 공약'을 위해 달려가는 현 정부로서는 바이오산업의 경제적 가치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황 박사의 연구승인이 가져올 미래를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NP

전국 사찰 플랜카드 달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동참문의 : 황우석특허수호시민연대 051-245-9511)

황우석 박사의 연구승인을 촉구하는 불교인 성명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불교조계종 26개 교구 본사 주지 일동은 황우석박사의 줄기세포 연구승인을 요구하는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우리들은 그동안 정부와 학계가 황우석 박사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관련재판은 장기화 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재판에 계류중이라는 명분으로 황우석 박사의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와 줄기세포를 다시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를 부당하게 막고 있습니다

지난 시절, 불교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불교TV(BTN특별기획)는 "미국 섀튼의 음모와 NT-1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황우석 박사의 진실을 알려 사회적 정의와 양심에 호소하였습니다.

최근 불교TV의 방송 내용들이 사실로 들어나고 있습니다. 즉 황우석 박사팀이 직접 담당했던 복제 배반포는 104개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졌으나, 공동 연구팀이었던 상대측의 영역에서 섞어 심기를 하였습니다. 비록 연구 총괄 책임자로서의 관리 감독의 책임은 있으나 상대 공동연구팀에 의한 피해자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황우석 박사팀의 줄기세포 특허가 국내외에 등록될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복제 세포치료 분야에 있어 전세계적으로 유일한 원천특허를 보유하게 됩니다. 줄기세포 기술이 미래의 주요 성장동력이란 점을 고려해볼 때, 선진국들이 정부차원에서 BT산업에 전력투자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대한민국처럼 천연자원 부족국가에서는 국가 발전이라는 의미해서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할 시기인 것입니다.

그 동안 줄기세포 연구의 종주국으로 자처했고, 현재까지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중단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줄기세포 연구는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병고자를 위한 숭고한 연구이자, 생명을 살리고자하는 자비사상의 과학적 실천 행위인 것입니다.

황우석 박사는 독보적으로 복제 배반포를 대량으로 만든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여전히 동물 복제에서 세계적 명성을 인정받고 있는 과학자입니다. 생명공학의 선진국으로 자부하던 미국에서도 10년 동안 이루지 못한 "미시프로젝트"를 단기간에 성공하였고, 중국의 사자견등을 복제하여 상용화 수준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우리 주지스님들은 이제 황우석 박사에게 연구 승인을 해주면 복제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적 준비와 윤리적 자세를 갖추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불교조계종 26개 교구 본사 주지 일동은 진지한 고려와 판단을 한 결과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결 의 문]

1. 황우석 박사팀의 연구를 부당한 이유로 억제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더 큰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정부가 줄기세포 연구를 승인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1. 특허청은 황우석 박사가 제출한 줄기세포 특허를 원천특허로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속히 심사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1. 정부는 생명공학과 관련한 국가제도와 법령을 개선하여야 하며 불교계 의견을 수렴 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26개 교구 본사 주지 일동